

체면과 권리의 관점에서 본 부부 대화의 불통 및 오해*

이성범** · 한승훈***

(서강대학교)

<Abstract>

Lee Sungbom, Han Seung-Hoon. 2014. **Miscommunication and Misunderstanding in Marital Conversa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Face and Rights.** *Korean Semantics*, 4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agma-linguistic aspects of miscommunication and misunderstandings that occur in conversations between married couples in Korea. An attention is paid to six different types of conversations, depending on the interlocutors' intentional cooperation and rapport-management orientation. A special focus is laid not just on the concern for their 'face' but also on their perception of sociality rights – a key notion proposed by Spencer-Oatey (2000, 2005) in accounting for (dis)harmony and (un)smoothness in verbal communication. We apply these theoretical notions and principles to a set of real, natural conversation data that represent each type of marital conversations. Finally, the results of our analysis are discussed in comparison with Jeon's (2009, 2011) analyses of speech acts of refusals and disagreement.

* 본 연구의 초안은 제34차 한국어의미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저자들은 당시 토론 및 질문에 감사하며, 혹시 남아 있는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들의 책임임을 밝힌다. 이 연구는 2012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과제번호 20120078.01).

** 제1저자

*** 교신저자

핵심어: 부부 대화(marital conversations), 불통(miscommunication), 체면(face), 권리(rights), 오해(misunderstanding), 협조(cooperation), 조화 관계(rapport), 조화 관계 지향(rapport orientation), 발화 수반력(illocutionary force) 자율(autonomy), 사교권(sociality rights), 평등권(equity rights), 교제권(association rights), 행동 이론(action theory).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 부부 사이에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 대화를 행동이론과 화용론의 관점에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서의 도된 불통과 고의적 오해에 대해 Spencer-Oatey(2000, 2005)가 제안한 ‘조화 관계 관리(rapport management)’ 이론의 틀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가깝고도 사랑스러운 대상일 것 이란 점을 가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유된 가정 하에서 각 주체들은 상대방을 인생의 반역자로 결정하게 되고 이들의 합의된 결정은 결혼이란 의식을 통하여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선포된다. 그러나 결혼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었던 부부간의 공유된 가정과 합의된 결정은 부부가 된 후 그들의 일상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가 예상외로 빈번하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는 부부의 일상대화에서 각 배우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명시화되어 표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부의 대화는 ‘가장된 협조 형태 (혹은 형식적으로만 협조적인 유형)’ 혹은 ‘공유되지 않고 비협조 형태 (혹은 반목의 의도가 명백한 공격적 유형)’로 나타난다. 이러한 대화 형태의 공통적 특성은 배우자 자신 (즉, 화자)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방 배우자 (즉, 청자)가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거나 혹은 청자가 이를 고의적으로 차단하여 자신의 의도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점이다.

Spencer-Oatey(2000: 12)는 언어 사용은 정보 전달(information transfer) 그리고 사교적 관계의 관리(social relations management)라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사교적 관계와 관련된 언어 사용의 양상을 대화 참여자

간의 조화 관계 관리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그의 연구에서는 조화 관계(rapport)를 “the relative harmony and smoothness of relation between people”이라고 정의한다. 즉,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조화 관계 지향점(rapport orientation)에 따라 대화자간의 상대적인 조화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자가 추구할 수 있는 조화 관계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제안한다.

(1) 4가지 조화관계 지향점 (Spencer-Oatey, 2000)

- 1) Rapport-enhancement orientation: 대화참여자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다 두텁게 하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것
- 2) Rapport-maintenance orientation: 대화참여자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보존하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것
- 3) Rapport-neglect orientation: 대화참여자들 사이의 관계의 질에 대해 관심 혹은 걱정하지 않는 것
- 4) Rapport-challenge orientation: 대화참여자들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것

이러한 네 가지 조화 관계 지향점이 다양한 화행을 실현함에 있어 화자가 선택하는 언어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인이라고 한다. 단순히 생각해 볼 때, 만일 화자가 1) 혹은 2)와 같은 지향점을 갖고 상호작용에 참여한다면 화자는 청자와의 관계에서 불통 혹은 오해를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반면 3) 혹은 4)와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는 화자라면 그의 상호작용 의도는 불통을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가볍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주목할 부분은 위의 유형들은 화자의 입장에서 고려되어 설정된 것이란 점이다.¹⁾ 대화는 화자와 청자로 구성된 양방향

1) 본 논문과 관련하여 익명의 토론자께서 Spencer-Oatey의 4가지 유형화의 기준은 대화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화자와 청자 그리고 맥락에 대한 고려가 전제된 이론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입장에서만 설명된 이론이라는 본고의 주장에 의문을 제시했다. Brown & Levinson(1987)의 공손성 원리가 체면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면 Spencer-Oatey의 관계관리 이론은 체면을 “자극심 체면” 그리고 “사회정체성 체면”으로 확장하고 나아가 “권리”의 중요함까지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권리”는 상호작용에서 개인이 주장하는 근본적인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임무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개인적 임무라는

성 모델을 기본적인 가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말할 필요가 없이 당연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화의 양방향성 및 역동성을 적절하게 이해하려면 화자의 입장과 더불어 청자의 독립적인 입장 및 지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본 연구에서 Han(2014)의 여섯 가지 유형의 행위²⁾ 중 고의적인 불통 혹은 오해와 밀접하게 관련된 세 가지 유형에 기반하여 한국 부부간의 대화의 불통 혹은 오해의 현상을 Spencer-Oatey의 관점 (즉, (1) 그리고 조화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즉, 체면(face), 권리(rights), 자율(autonomy), 교제(association), 개인 간의 지향점(interpersonal orientations), 그리고 집단 간의 지향점(intergroup orientations))에서 실제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세 가지 유형 그리고 Spencer-Oatey의 요인에 대한 부가적인 언급을 하겠다.

것은 대화에서 발화행위를 수행하는 주체, 즉 화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개념이다. 그러나 이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또 다른 주체인 청자가 화자의 임무가 투영된 화행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대화참여자의 지향점은 궁극적으로 결정된다. 가령, 화자는 “조화상향지향점”을 반면 청자는 “조화무시지향점”을 갖고 대화에 참여하게 될 때 이는 4가지 유형화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결국 4가지 유형화 개념에서 참여자는 화/청자를 모두 가리키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서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청자는 수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불균형적 전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인간의 행위를 구성하는 4가지 핵심요소는 의도, 믿음, 태도 (혹은 바람), 그리고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 요소들 중 의도가 모든 행동의 가장 기저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하여 이것의 결과가 결국 인간의 행동으로 표상된다 (Bratman, 1984, 1985, 1987, 1992a, 1992b, 1993). 이러한 행동이론과 Grice(1975)의 협조원리 개념을 결합하여 화자와 청자의 대화행위를 구성하는 4가지 요소에 각각 긍정(+), 중립(0), 부정(-)의 자질을 부여하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예견되는 행위의 유형을 6가지로 구분한다. 6가지 행위에는 “공유되고 협조 행위(Shared & Cooperative Action: SCA), 협조행위(Cooperative Action: CA), 비교적 협조 행위(Relatively Cooperative Action: RCA), 가장된 협조 행위(Pretended Cooperative Action: PCA), 비협조행위(Uncooperative Action: UA), 공유되지 않고 비협조 행위(Non-shared & Uncooperative Action: NUA)”가 포함된다. 6가지 행위는 “현실성(reality)” 그리고 “행위속성(property)”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하나의 연속체 선상에 분포됨을 가정한다. 가령, SCA는 현실성은 가장 낮지만 행위의 속성은 가장 긍정적인 반면, NUA는 현실성은 가장 높지만 행위의 속성은 가장 부정적이다 (Han, 2014: 58-71).

2. 부부 대화의 세 가지 유형 그리고 조화 관계 이론

2.1. 부부 대화의 세 가지 유형

Han(2014)은 행동이론과 Grice(1975)의 협조의 개념을 토대로 “제1 그리고 제2예비조건”³⁾을 마련하여 부부간의 이전의 관계에서 예견되는 행동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그 중 “가장된 협조 행위(Pretended Cooperative Action: PCA)”, “비협조 행위(Uncooperative Action: UA)”, 그리고 “공유되지 않고 비협조 행위(Non-shared & Uncooperative Action: NU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위의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의 행위는 부부간의 언어적 행위뿐 아니라 비언어적 행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상호작용 행위를 가리키며 각 유형의 행위는 행동의 자질과 현실적 속성에 따라 하나의 연속체 선상에서 정도화되어 분포되는데 각 유형의 행위는 다른 유형으로의 변화가 가능하며 이러한 변화는 진행되는 대화맥락에서 각 주체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언어전략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언어 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의 행위 의도성을 연구한 Bratman(1990)에 따르면 “의도”는 인간의 의식적 행동과 정신 활동을 특징화하기 위한 본질적 개념이다. Bratman(1992a: 1-2)의 “glue theory”에서는 “의도”는 인간의 모든 전략적 행동에 배후에 존재하며 이것은 주체의 행동을 구성하는 그 밖의 요소들인 믿음, 바람, 그리고 계획과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이것은 각 구성요소의 형성, 변화, 그리고 수정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요소로 간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행동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의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고정

3) “제1예비조건(First Preliminary Condition: FPC)”은 Bratman(1984, 1985, 1987, 1992a, 1992b, 1993)의 행동이론적 접근법에 근간한 “glue theory”와 Grice(1975)의 협조의 원리에서의 “협조(cooperation)”의 개념의 결합에서 비롯된다. 이 조건은 화자와 청자에게 독립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각 주체의 행동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즉, 의도, 믿음, 태도 (혹은 바람), 계획)에 긍정(+), 중립(0), 그리고 부정(-)의 자질을 각각 부여할 때 상호간의 관계에서 예견되는 특정한 행위의 유형을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2예비조건(Second Preliminary Condition: SPC)”은 FPC를 발화의 두 가지 의미 층위에 확대 적용하여 각 의미의 층위에서 예견되는 특징적인 행위의 유형을 구분한다 (Han, 2014: 60-84).

되어 있는 정적 속성을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시간 그리고 상호작용의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다른 요소들과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동적 속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행동 이론의 분석을 받아들인 Han(2014)의 제1예비조건에 의하면 “가장된 협조 행위”란 화자와 청자가 특정한 목적에 대해 수렴하는 의도를 형성한 상태에서 주체들 간의 믿음(-), 태도(-), 계획(-)이 모두 부정적 자질을 갖게 될 때 예견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행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주체가 상대방과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진실 됨이 없는 상태에서 갈등 혹은 부조화를 피하기 위한 가장된 협조적 행위를 한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관계를 형성한 부부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형식적으로만 협조하려는 목적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유형의 행위를 ‘형식적으로만 협조적인 유형’으로 언급하겠다. 다음의 예 (2)를 살펴보자.

(2) 외로운 아내, 입 다문 남편 (남편: 39, 아내: 32)

[1] 아내: 아이 데리고 앉아서 먹지 마! 뭐야 그게~?

[2] 남편: 아~ 예!

[3] 아내: 밥 먹을 때 밥만 먹어!

[4] 남편: 아~ 예!

남편은 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한 후 아내가 준비해 놓은 저녁식사를 하고 있다. 그는 딸아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채 식사를 시작한다. [1]과 [3]에서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앉아서 먹지 않는 행동’이 남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preparatory condition) 자신의 충고의 화행이 그에게 이로울 것이라는 믿음으로 (sincerity condition) 충고의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을 명령의 화행을 이용하여 전달한다. 그러나 남편은 [2]와 [4]에서처럼 진실성이 결여된 응답을 한다. 그의 이러한 응답은 아내의 충고의 발화수반 효과가 특정한 방해요소로 인해 전달되지 못한 것 혹은 그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적합한 설명을 위해서 그들의 이전의 관계에서 형성된 행위에 대한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부의 이전 관계에서 형성된 행위는 첫 번째 유형의 “PCA”에 해당된

다. 아내는 ‘남편이 아이를 안고 식사하지 않길’ 원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그녀는 이것을 충고의 화행으로 표현한다. 한편,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안고 식사하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거나 혹은 묵인해주길 원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이러한 그의 바람이 투영된 믿음은 그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전략으로 명시화된다. 즉, 남편은 표면적으로는 동의하는 척하지만 함축적으로는 반대하고 있는 “insincere agreement”의 무례함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Culpeper et al. 2003: 1566). 예 (2)에서와 같이 부부는 정보를 교환한다는 특정한 목적에 대해서는 수렴하는 의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들은 상호간의 일치하지 못하는 믿음과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조화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진실 됨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편의 발화는 부인과의 대화에서 갈등 혹은 부조화를 피하고자 협조를 가장한 대화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비협조 행위”란 화자와 청자는 특정한 목적에 대해 수렴하지 못하는 의도를 형성하는 상태에서 중립적(0) 자질의 믿음을 제외한 태도(-) 그리고 계획(-)이 부정적 자질을 갖게 될 때 예견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행위의 특징은 주체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부조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는 자신의 의도를 명시화하기 위해 공격적 언어전략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비협조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공유되지 않고 비협조 행위”란 화자와 청자는 공유되지 못하는 의도를 형성하고 나아가 그 밖의 모든 요소가 (즉, 믿음(-), 태도(-), 계획(-)) 부정적 자질을 갖게 될 때 예견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유형은 상호작용에서 주체는 오로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로 무장되어 비 공유되고 비협조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언급한 두 가지 유형을 ‘반목의 의도가 명백한 공격적 유형’으로 총칭하여 다루기로 한다. 다음의 예 (3)을 살펴보자.

(3) 우리 정말 사랑했을까? (남편: 31, 아내: 30)

[1] 남편: 상담 신청한 이유가 뭔지 묻는 게

그냥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걸 그냥 다 말하고 싶은 건지?

[2] 아내: 어~! 할 수 있다면 다~ 얘기하고 싶어!
할 수 있다면 다~~~ 얘기하고 싶어!

우선, 우리는 기존의 언어학적 관점으로 예 (3)을 살펴보겠다. 아내는 남편의 질문의 발화수반력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편의 발화 중 ‘다 말하고 싶은 건지’의 문자적 의미만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응답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내는 Bach & Harnish(1979)의 “Acknowledgments” 또는 Austin(1962)의 “Behavitives”와 같은 거절의 발화수반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적합할 것이다. 이들의 설명에 기반해 본다면, 아내의 화행은 남편의 과거 행동에 대한 아내의 감정을 진술하는 언어행위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내의 감정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자 한다. 혹시 아내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남편의 행동이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절 혹은 반박의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부부 대화 행위의 관점에서 예 (3)을 다시 살펴보자. 이들의 이전 관계에서 성립된 행위의 유형은 “UA”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들 간의 이전 관계에서 형성된 행위는 일치되지 않는 의도에 기반하여 믿음은 중립의 상태이지만 태도와 계획은 모두 부정적 자질의 요소로 구성된다. [1]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질문의 발화수반력을 전달하고 있지만 아내는 남편의 화행에 포함된 의도를 인식하여 해석과정을 경험한다기보다는 아내 자신의 의도 (즉, 부정적 의도)에 기반한 해석과정을 통하여 ‘할 수 있다면 다 얘기하고 싶다’는 폭로 혹은 고발의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내의 언어전략은 자신의 적극적 체면을 유지하고 나아가 남편의 적극적 그리고 소극적 체면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하기 위한 공격적 화행 (즉, bald-on record ImP)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내의 공격적 언어선택은 “UA”에 기반한 대화행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특히 일치되지 못하는 의도가 ‘질문’의 화행에 대한 적합한 응답에 필요한 아내의 믿음의 자질을 부정적 상태의 것으로 변

화시켰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물론, 대화 자체의 목적에 대한 아내의 바람은 남편의 그것과 일치되지 않음). 따라서 특정한 화행에 대한 공유되지 못하는 의도와 믿음은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아내는 공격적 언어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내의 화행은 단순한 반박 혹은 거절이라기보다는 남편의 체면에 위협을 가하려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언어행위라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예 (3)을 Culpeper et al.(2003)의 반응 유형과 관련시켜 살펴보면 (3)은 정형화된 offensive-offensive반응의 반례로 간주 할 수 있다. 남편은 아내에게 질문의 발화수반력을 정중하게 전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아내는 [2]에서와 같이 반복의 전략을 이용하여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싶다’는 자신의 바람을 표현한다. 아마도 아내는 남편의 이전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발하거나 폭로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녀의 반응은 남편이 알고자 원하는 정보가 아닐 뿐 아니라 남편의 적극적 체면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공격적 화행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 그녀의 화행이 공격적 속성을 지녔다는 또 다른 증거는 그녀의 반복 전략에서 엿볼 수 있다. ‘다 얘기하고 싶어’의 반복적 사용은 남편의 질문 화행에 대한 단순한 반박을 넘어서 남편을 위협하고자 하는 아내의 반목 의도가 명백한 공격적 화행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의 설명은 화자가 선택하는 화행의 형태가 청자의 반응의 유형을 결정한다는 화자중심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Spencer-Oatey의 것과 동일한 근간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대부분의 정상적인 대화에선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예 (3)과 같은 유형의 대화에선, 비록 이전의 맥락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할지라도, 그것의 효용성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행위자의 언어적 반응은 상대적인 속성에 (즉, 상대방의 언어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점) 취약할 수 있지만, 만일 주체의 행위가 반목의 의도가 명백한 공격적 유형 (즉, “UA” 혹은 “NUA”)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것은 상대성 보다 개인적 속성에 (즉, 자신의 부정적 행위의 자질에 의해 더욱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점) 더욱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 Spencer-Oatey의 조화 관계 이론

Spencer-Oatey(2000)는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조화 관계에 영향을 주는 대화 사례들을 체면과 권리, 자율과 교제, 개인 간 그리고 집단 간의 지향점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조화 관계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4) 조화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

- 1) 체면에 대한 우려(concerns about face)
- 2) 권리에 대한 우려(concerns about rights)
- 3) 개인 간 지향점에 대한 우려(concerns about interpersonal orientations)
- 4) 집단 간 지향점에 대한 우려(concerns about intergroup orientations)

1)은 사람이 갖고 있거나 생각하는 가치(worth), 신뢰성(credibility), 존엄(dignity), 명예(honour), 명성(reputation), 능력(competence) 등에 대해 주체가 지키고자 하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바람(desire or want)을 가리킨다. 이것은 개인적 바람의 성취라는 측면에선 Goffman과 Brown & Levinson(1987)의 체면의 개념과 유사하나 Spencer-Oatey의 체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자긍심 혹은 성취감에만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개인들이 속한 집단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Spencer-Oatey는 체면을 둘로 나누어 개인적 수준에서의 체면, 즉 자긍심 체면(equity face)과 집단적 수준에서의 체면, 즉 사회적 정체성 체면(social identity face)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2)를 보자. 체면과 구별되는 “권리”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을 포함한다. 이에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접받을 수 있는 권리인 평등권(equity rights)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권리인 교제권(association rights)이 있다. Spencer-Oatey에 의하면 자율성에 관한 우려나 교제권에 대한 우려는 조화 관계 형성이나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결국 개인들 사이의 지향점에 관한 우려는 체면이나 권한에 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며 나아가 이것은 조화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4)는 개인뿐 아니라 각 개인들이 속한 특정 집단 간의 지향점에 관한 우려이다. 이것은 특정 집단의 특성이나 추구하는 가치,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의견 불일치나 의도적 외면 또는 오해가 원인이 되어 이것들이 조화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화 관계적 관점에서 한국 부부 간의 대화에서의 불통과 오해는 (4)에 따라 기술될 수 있다. 3절에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의 대화 행위를 재 구분한 두 가지 그룹을 활용하여 (즉, ‘형식적인 협조 유형’ (“PCA”) 그리고 ‘반목의 의도가 명백한 공격적 유형’ (“UA” or “NUA”) 각 유형과 관련된 실제의 사례들을 (1)과 (4)의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3. 두 가지 유형의 행위와 조화 관계 이론

3.1. 형식적으로만 협조적인 유형

우리는 본 절에서 ‘형식적으로만 협조적인 유형’ 그리고 ‘반목의 의도가 명백한 공격적 유형’에 해당하는 실제의 부부간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다. 전자는 “PCA”에 반면 후자는 “UA” 혹은 “NUA”에 상응하는 유형의 대화이다.

(5)부터 (7)은 부부 간의 최소한의 조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형식적 이야기로 구성된 실제의 사례들이다.

다음의 예 (5)를 살펴보자. (5)는 2011년 8월 12일에 EBS의 “부부가 달라졌어요”에서 방송되었던 부부의 이야기 중 일부를 전사한 것이다. 부부의 대화는 남편이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5) 권리에 대한 우려 (지향점: (1)-2) 혹은 (1)-3))

(남편: 36, 부인: 34, 결혼 8년차)

[1] 아내: 근데, 자기는 왜 요즘은 이렇게 한 숨을 많이 쉬어?

[2] 남편: 일이 안 되니까.

- [3] 아내: 아니 일이 안 되는 거 아니라도 내가 무슨 말 하더라도 한 숨 쉬고,
들어와도 한 숨 쉬고...
- [4] 남편: 몰라. 그냥 싸우기 싫어. 싸울 거란 걸 분명히 아니까.
- [5] 아내: 피하려고만 하고.
- [6] 남편: ...
- [7] 아내: 말 좀 해봐라.
- [8] 남편: 무슨 말을 해?
- [9] 아내: 이러다 자기 집 가면은 얘기만 잘 하잖아.
그런 것도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가식적인 것.
- [10] 남편: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 하겠냐?
얘기해, 얘기해, 얘기해, 하면 그럼 내가 얘기해?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어 놓고 말해, 말해, 그러면 내가 뭘 말을 하나
고?
- [11] 아내: 아무 말이라도 해보라고 제발.
- [12] 남편: 뭘 말을 하냐, 내가! 아무 말이나.
- [13] 아내: 하고 싶은 말!
- [14] 남편: 그만해!

언어적 분석에 앞서 우리는 잠시 예 (5)의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남편은 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아내의 요청과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하는 것을 귀찮아한다. 한편 아내는 이러한 남편의 행동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강하게 믿고 있다. 이들 부부의 갈등은 남편의 바람 (집에서 편히 쉬고자 함)과 아내의 바람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함)이 각각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상호 일치되지 않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정보를 바탕으로 예 (5)를 살펴보자. 남편은 아내에 대해 rapport-neglect지향점을 (즉, (1)-3)) 갖고 있는 반면 아내는 rapport-maintenance 지향점을 (즉, (1)-2)) 갖고 있다. 이 부부는 대화 자체의 목적에 대해선 수렴하는 의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남편은 아내와의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바람을 바탕으로 형식적인 협조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믿음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아내는 남편과의 조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관계 개선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믿음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그리고 [4]에서와 같이 남편은 아내의 요청 화행에 대해 형식적 응답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바람과 믿음에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아내는 이러한 남편의 화행이 진실 되지 못하다는 믿음을 갖고 관계 개선을 위한 바람으로 요청 화행을 이어 간다 ([5] 그리고 [7]). 하지만 남편은 [6]과 [8]에서처럼 아내의 반복되는 화행에 직접 반박을 한다. [9]에서 아내는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리고 “가식적인 것”이란 금기어(taboo words)사용의 적극적 무례함 전략을 채택한다. 이는 아내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길 원하지 않는 남편의 바람에 손상을 주게 되어 결국 부인으로부터 자신의 바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궁극적으로 남편의 적극적 체면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Culpeper, 1996: 357-358). 이에 대해 남편은 [10], [12], 그리고 [14]에서처럼 직접 반박을 한다.

예 (5)에서 남편과 아내는 대화에 관한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지만 아내의 (1)-2)에 해당하는 지향점은 남편의 (1)-3)에 해당하는 지향점이 반목을 추구하기 위한 공격적 대화로 진행되는 위험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부의 대화는 반목과 대립보다는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정도의 협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예 (5)는 대화참여자들 사이의 관계의 질에 대한 관심 혹은 걱정 보다는 자신의 평등권에 손상이 가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 (5)는 상이한 지향점에 기반한 (1)-2) 혹은 (1)-3)에 기반한 (4)-2)와 관련된 형식적 협조적 유형의 대화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 (6)을 살펴보자. 예 (6)은 2013년 1월 21일에 방송된 내용 중 일부를 전사한 것이다.

(6) 개인 간 지향점에 대한 우려의 확장 (지향점: (1)-2) 혹은 (1)-3))

(남편: 52, 부인: 45, 결혼 27년차)

[1] 아내: 지금 벌써 몇 개월째야?

[2] 남편: 3개월 됐다.

[3] 아내: 무슨 3개월이야! 더 됐지!

- [4] 남편: 딱 문자 오잖아. ‘왜 돈 안 줘?’
 [5] 아내: 내가 ‘왜 돈 안 주냐구’ 그랬어? 문자로?
 [6] 남편: 사실 입장이라는 게, 한 달에 솔직히 카드가 얼마 나와?
 [7] 아내: 그거 왜 물어봐?
 [8] 남편: 그러니까, 나는…
 [9] 아내: 자기도 그거 언제 나한테 얘기해줬어? 나한테도?
 근데, 나한테 왜 물어 보냐구?
 월급 때만 되면 피해 다니고 살살 피해 다니면서, 뭐…!
 [10] 남편: 이것 봐! 이거 도로 성질내면서!
 [11] 아내: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항상 말을 안 하잖아. 나한테?
 [12] 남편: 성질부터 버럭 내버리니까 내가 얘기…
 [13] 아내: 성질나게 해 놓고서 탄 소리하고 자빠졌어!
 [14] 남편: …

예 (6)의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 부부는 서로의 돈벌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상황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최근의 경제 사정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요청 화행을 수행한다 (즉, [1] 그리고 [3]). 아내의 화행은 남편과의 최소한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rapport-maintenance 지향점: (1)-2)). 반면 남편은 [4]에서와 같이 아내의 요청의 발화수반력에 담긴 의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왜 돈을 안 주냐”는 비난의 발화수반력을 아내에게 전달한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남편은 조화로운 관계 유지보다는 자신의 평등권 혹은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자기중심적 지향점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rapport-neglect 지향점: (1)-3)).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은 조화 관계에 대한 서로 일치하지 못하는 지향점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발화에서 흥미로운 점을 관찰할 수 있다. 본래 아내의 지향점이 남편의 그것과 동일하게 변화된다는 것이다. 남편은 [6]에서 아내의 구체적인 경제 사정 (“한 달에 카드가 얼마 나와?”)을 알고자 요청 화행을 수행하지만 (물론 남편의 관계 지향점을 고려해 볼 때, [6]은 순수한 요청 보다는 비난의 발화수반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아내는 [7] 그리고 [9]

에서와 같이 직접 반박을 통한 거절의 화행으로 응답한다. [10]과 [12]에서 남편은 대화의 주제와는 관련이 적은 아내의 화행 방식에 대해 비난한다. [6]부터 시작된 상호간의 비난 그리고 거절의 화행은 결국 부부가 적극적 (taboo words: “자빠졌어!”) 혹은 소극적 무례함 전략 (대화거부)을 선택하게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부는 자신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협조 행위를 통해 상호작용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 (6)은 대화참여자간의 서로 일치되지 못하는 지향점에 관한 우려가 결국 자신들의 평등권과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우려로 확장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유형과 관련된 또 다른 예 (7)을 살펴보자. (7)은 2011년 9월 23일에 방송되었던 내용 중 일부이다.

예 (7)은 2011년 9월 23일에 방송되었던 내용 중 일부를 전사한 것이다.

(7) 집단 간 지향점에 대한 우려의 확장 (지향점: (1)-2) 혹은 (1)-3)

(남편: 37, 부인: 33, 결혼 9년차)

[1] 남편: 아니야!

[2] 아내: 딸은 자식이 아니야?

[3] 남편: 자식인데 그 위치가 아니라고. 나는 장손에 장남이야!

[4] 아내: 근태, 그게 뭐?

[5] 남편: 그게 뭐라고 네가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우리나라 사회에선 그게 커.

[6] 아내: 남편이 그랬잖아.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래 때?

[7] 남편: 너 맘머느리야. 어~~ 어~~?

[8] 아내: 누가 맘머느리 아니래?

 얘기 여기까지 하자!

[9] 남편: 화내지 말고.

[10] 아내: 여기까지 하자! 여기서 왜 ‘너’란 얘기가 나와?

예 (7)의 부부는 그들이 속해있는 가정에서 자식으로서의 지위 (혹은 위치), 그리고 역할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남편은 장남으로서의 지위와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아내 역시 자신의 가정에서

만머느리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3], [5], [7]). 반면 아내는 만머느리로서의 지위와 역할보다는 자신의 가정에서 딸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주장하면서 남편의 요청 화행에 반박을 하고 있다 ([2], [4], [8]).

대립의 근원은 바로 각자의 가정에 대한 가치 혹은 배경에 대한 일치되지 못하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의 불일치는 부부가 대화에서 상대방의 평등권 혹은 자긍심 체면을 유지하는 일보다 자신의 그것들을 유지하고 사수하는 일을 더욱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도록 한다. 이들의 대립 구조는 [8]에서와 같이 아내의 명시적 거부의 화행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얘기 여기까지 하자!": opt out on record 전략). [9]에서 남편의 수정 시도는 [10]에서와 같이 아내에 의해 배척되게 된다.

우리는 잠시 아내의 행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8]부터 [10]). 아내의 믿음 불일치 상태는 남편의 지속적인 반박 ([3], [5], [7]) 화행으로 인해 의도의 불일치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내는 형식적이긴 하지만 남편과의 대화에 협조적 태도로 임하고 있었다. 이러한 언어 사용의 증거가 그들이 대화 이전에는 특정한 목적에 대해 수렴하는 의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 그리고 [10]에서 아내의 무례함 전략 사용은 그녀의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 중 특히 의도의 자질에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내는 대화 전반 부에 가지고 있었던 (1)-2)의 지향점을 (rapport-maintenance orientation) (1)-3)으로 (rapport-neglect orientation) 전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아내는 자신의 평등권과 자긍심 체면의 유지를 위해 대화에 참여하게 된다. 반면 남편의 의도 자질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는 간접화행을 통해 불일치 된 자신의 믿음 상태를 계속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대립의 구도를 완화시키고자 하려는 수정의 시도까지 기울이게 된다. 한편으로 그의 의도는 대화 이전부터 아내의 그것과는 일치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반복되는 아내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화행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그의 언어적 시도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 (7)은 그들이 속해있는 가정의 집단에 대한 지향점의

차이가 결국 아내에게는 체면과 권리에 대한 우려의 문제로까지 확장된 사례라 판단된다. 비록 일치된 지향점을 추구하면서 서로에 대한 권리와 체면을 유지하려는 이상적 화행이라고 평가할 순 없지만 상대방 화행에 내포된 발화수반력을 인식, 이해하고 이에 상응하는 언어적 반응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 협조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대화는 협조를 가장한 형식적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2절에서는 지금까지의 사례와는 확연하게 다른 반목의 의도가 명백한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다.

3.2. 반목의 의도가 명백한 공격적 유형

본 절에서는 ‘반목의 의도가 명백한 공격적 유형’ 즉 Han(2014)의 “UA” 혹은 “NUA”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화자와 청자가 (1)-3) 혹은 (1)-4)의 지향점 (즉, rapport-neglect 혹은 rapport-challenge orientation)을 가진 경우이다.

다음의 예 (8)은 2011년 6월 26일에 “아내의 이유 있는 분노”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내용 중 일부이다.

- (8) 권리에 대한 우려 (지향점: (1)-4)) (남편: 50, 부인: 47, 결혼 21년차)
- [1] 아내: 어허허~~, 내가 모시자고 그랬다구? 그럼? 어?
내가 데리고 살자고 그랬다구?
- [2] 남편: 그래!
- [3] 아내: 내가 그 사람을 왜 데리꾸 사니? 여기서! 미쳤나? 응?
니 부몬데 니가 모시고 살지! 내가 왜 데리꾸 살아!
- [4] 남편: 그런 식으로 응~ 상처를 내려구 자꾸! 응~!
- [5] 아내: 내가 자꾸 무슨 상처를 널려구 그래?
- [6] 남편: 말하는 그 자체가 다 상처잖아!
- [7] 아내: 아니, 무슨 상천데? 상처 지금 받은 게 뭐지?
- [8] 남편: 당신이 우리 형제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 상스럽게 얘기하고 한 게 다 상처지 뭐야?

[9] 아내: 대화가 되는지 보다! 그러니까 안 되지!

[10] 남편: 그래!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가나?

[11] 아내: 피가 어디 가나?

이들 부부는 남편의 어머니 문제로 (즉,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들의 대화는 소통을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불통을 초래하기 위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듯 보인다.

우리는 분석에 앞서 이들 부부의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자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이들은 특정한 목적 (즉, 어머니 문제)에 대해 공유되지 못하는 의도를 형성하고 나아가 믿음, 태도, 그리고 계획의 모든 요소들이 부정적 자질의 상태에 놓인 “공유되지 않고 비협조 행위”를 형성하고 있다. 아내는 21년 동안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의 가족 중 특히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었다. 이 뿐 아니라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의 상처를 감싸주고 배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아내를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왔었다. 이러한 이전의 맥락 정보는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수준에서 아내의 자긍심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 체면뿐 아니라 평등권 모두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게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태는 아내의 행동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의도를 남편의 그것과는 공유되지 못하는 것으로 형성하게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되지 못하는 의도의 형성은 믿음, 바람, 그리고 계획의 모든 요소가 부정적 자질을 갖게 하는 결정적 단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 (8)의 아내는 남편과의 이전 관계에서 “공유되지 않고 비협조 행위”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부터 [5]에서와 같이 아내의 화행은 남편의 체면과 권리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기 위한 무례함 전략으로 구성된다. 남편의 화행 또한 직접 반박 그리고 비난의 발화수반력으로 구성된다. [7]에서 아내의 “상처 지금 받은 게 뭐지?”의 발화는 “당신이 느끼는 상처는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상처의 무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라는 반목의 의도와 불신이 함축되어 있다. 이에 대한 남편의 비난 화행은 ([8] 그리고 [10]) [7] 발화의 함축된 의미를 복원한 결과가 아닌 발화의 표면적 의미만을 해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대목

에서 우리는 남편의 행동을 구성하는 의도와 믿음 역시 아내의 그것들과는 공유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해 남편은 전형적인 비난과 비동의 화행을 수행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비동의 화행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대화전략을 [+/- 문제해결] 그리고 [+/- 관계유지]의 두 가지 기준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전정미(2011)의 관점에서 [7]부터 [11]까지의 turn을 살펴보자. 아내의 비동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 문제해결, -관계유지]의 자기중심 전략에 기반 하지만 [7]에서는 [- 문제해결, -관계유지]의 회피 전략으로 되물기를 수행하고 있다. 남편의 기본적 전략 또한 자기중심 전략에 해당되지만 [8]에서는 [+ 문제해결, + 관계유지]의 승승 전략으로 아내의 요청 화행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아내의 되물기 ([7]) 그리고 남편의 이유 설명하기 화행은 ([8]) 전정미가 주장하는 각각의 세부 전략에 해당되지 못한다. 이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들의 화행은 본질적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의도의 상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7]에서 아내의 되물기 화행은 자신의 함축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자기중심 전략 혹은 승승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면 [8]에서 남편의 이유 설명하기 화행은 오히려 아내를 비난하고 자신의 반목의 의도를 단언하려는 자기중심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적합할 것이다. 이와 같이 반목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부부는 비동의 전략을 [+/- 문제해결] 그리고 [+/- 관계유지]의 기준에 기반 하여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 자신 체면 유지] 그리고 [+ 의도 성취]라는 또 다른 자기중심적 내적 기준에 의해 선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Han, 2014)⁴.

따라서 예 (8)의 대화참여자들 그들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무너뜨리기를 원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1)-4)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상대방의 체면과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이 아닌 자신의 그것들을 사수하려는 방향으로

4) 한편, 전정미(2009: 118)는 동일한 두 가지 기준을 활용하여 거절화행을 제압형 ([- 관계유지, + 문제해결]), 회피형 ([+ 관계유지, - 문제해결]) 그리고 융합형 ([+ 관계유지, + 문제해결])으로 세분화한다. 그러나 “UA” 혹은 “NUA”에 기반한 복합적 무례함 전략을 활용하는 고의적 거절화행은 [+ 자신 체면 유지] 그리고 [+ 의도 성취]가 이타적 속성의 [문제해결] 그리고 [관계유지] 보다 상호작용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자기중심적 속성을 지닌 언어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는 전정미의 세 가지 유형에 속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Han, 2014: 425-426).

상호작용을 진행하게 하여 소통이 아닌 불통을 추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예 (9)는 2013년 3월 26일에 “아내의 짜증, 남편의 한숨”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내용의 일부이다. (9)에 대한 분석은 전정미(2011)의 전략 구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겠다.

(9) 체면에 대한 우려 (지향점: (1)-3) 혹은 4)

(남편: 37, 부인: 34, 결혼: 8년차)

[1] 아내: 아니! 뭐~ 음료수를 그렇게 한 사발을 먹냐구?

[2] 남편: 커피 먹는 대신 먹는 거야!

[3] 아내: 아니, 근데 그걸 뭐~ 그렇게 한 사발씩 먹냐구?

야~~! 내가 작은 거 사라고 그랬지! 이거! 누구 먹으려구?

[4] 남편: 아니! 나 먹는다니까, 왜 그래?

[5] 아내: 남기기만 남겨봐라!

[6] 남편: 남기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시비를 걸어]

음료수 사먹는 사이즈 가지고 저렇게 시비 거는 사람은 처음 봤어, 태어나서!

[7] 아내: 태어나서 처음 봤으면 어찌라고?

분석에 앞서 전략 구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부의 이전 맥락 정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 남편은 자신이 결정하는 대부분의 일을 아내와 사전에 논의하여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무관심하다. 제멋대로인 남편의 행동을 아내는 점점 견디기 힘들어 한다.

우리는 예 (9)에서 남편이 마시고 있는 음료수의 크기에 대해 부부는 일치 되지 않는 의도 그리고 믿음이 투영된 대화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남편은 [2]에서 아내의 비난 화행에 ([1])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지만 아내는 [3]에서처럼 남편이 음료수를 커다란 용기에 마시는 행위가 못 마땅하여 이를 되묻고 있다. [4]에서 남편은 아내의 요청 발화수반력을 사절하기로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내는 위협의 발화수반력을 전달하고 있으며 ([5]) 남편은 아내의 위협 화행에 비난의 발화수반력을 전달하

고자 직접 반박하고 있다 ([6]). 우선 남편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 전략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이유 설명하기 ([2]) 혹은 비난하기 ([6])를 맥락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남편의 이유 설명하기는 그들 간의 [+문제해결, +관계유지]의 승승전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전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내의 전략 또한 자기중심 전략에 기반하고 있지만 되묻기 ([3]) 화행은 남편과의 일치되지 못하는 아내의 의도와 믿음을 투영하여 이를 전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문제해결, -관계유지]의 회피전략이 아닌 자기중심전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의 복합적 비동의 전략의 기준은 오히려 [+자신 체면 유지, +의도 성취]의 반목전략에 기반하여 수행된 것이라 보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예 (9)의 불통에 관한 근본적 원인을 부부가 대화 참여에서 지향하고 있는 조화 관계 지향점에서 찾아본다면 이들은 (1)-4)에 해당하는 즉, 조화 관계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지향점 혹은 (1)-3)에 해당하는 관계의 질에 대한 관심 혹은 걱정을 하지 않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지향점은 주체가 비난 그리고 사절하기 등의 비동의 화행을 통해 조화 관계보다는 자신의 체면 유지와 의도 성취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반목의 의도가 분명한 지향점은 이들의 이전 관계에서 형성되었던 공유되지 못하는 의도와 믿음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형과 관련된 마지막 예 (10)을 살펴보자. 예 (10)은 2012년 5월 15일에 “아물지 않은 상처”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던 내용의 일부이다. 아내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로부터 심한 간섭을 경험해왔다. 아내는 이러한 간섭이 자신에 대한 시어머니의 불만과 부당한 비교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다. 한편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를 불편해 하는 아내를 이해시키는 일에 점점 지쳐가고 있다.

(10) 자율권과 교제권에 대한 우려 (지향점: (1)-2) → (1)-4)

[1] 남편: 내가 애들을 봐도 힘들고 짜증나고 그럴 때가 많은 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 내 애를 과연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얘기를 꺼내게 되는 거예요.

[2] 아내: 근데, 내가 명절 때 어머니 뵙고 이런 것도 되게 힘들어 하는거 알면

서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서운한데, 나는... 나는 너무 힘들거든요!

[3] 남편: 나도 지금 이 상황 이 자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4] 아내: 그니까 전화해보라고 했잖아요!

어머니한테 전화해보라고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그 날 내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할 수도 있다는 걸 감내하라고요!

[5] 남편: 나도 그 날 그렇게 될 수 있겠네!

[6] 아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감안하고 전화해보라고요!!

각오하고 있으라고!!! 나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예 (10)은 아이를 맡기는 문제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에 대한 사례이다. 남편은 아이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는 반면 아내는 모르는 사람이 차라리 남편의 어머니보다 좋고 편하다고 남편의 제안을 직접적으로 사절하고 있다 (혹은 직접적 반박). 그런데 아내의 반박 화행에는 남편이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불편한 심정을 이해해주시기를 원한다는 바람이 투영되어 있다 (“나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바람이 투영된 요청의 발화수반력 대신 반박에 대한 반응만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남편의 화행은 아내의 바람에 대한 직접적 거절의 역할을 하게 되어 이것은 결국 아내의 발화 행위를 더욱 공격적으로 (위협) 변화시키게 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이전의 사례와는 달리 최소한의 조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지향점 (즉, (1)-2))을 갖고 대화를 시작했지만 진행되는 맥락에서 각자의 바람과 믿음이 상대방의 반박으로 거절되어 각자의 자율권(autonomy)과 교제권에 직접적인 손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본래의 지향점을 조화 관계를 왜해시키고자 하려는 공격적인 지향점 (즉, (1)-4))으로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변화된 지향점이 채택된 시점부터 (즉, [4]) 부부는 손상이 가해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게 된다. 이것은 이들의 공격적 화행 형태로 맥락에서 표상되고 있다 ([4]-[6]).

예 (10)에서 확인되고 있는 불통은 주체의 자긍심 체면에 대한 바람이 상

대방에 의해 거절되어 이것이 권리에 대한 손상으로 확장되어 발생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주체가 지니고 있는 특정한 목적에 대한 바람의 거절이 불통을 유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이들의 이전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 요소인 의도가 상호 공유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공유되지 못하는 의도는 믿음의 불일치를 유발하고 나아가 바람 그리고 계획까지 불일치 되게 하는 결정적 동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형성된 행위는 상대방의 사소한 거절 행위에도 쉽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취약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불통은 공유되지 못한 의도와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불안정한 조화 관계 지향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대화는 화자와 청자로 구성된 양방향성 상호작용을 기본적 가정으로 삼고 있다. 소통이 일어나는 대화 구조의 분석을 위해 화자의 화행에 담겨있는 의도와 믿음의 정보가 중요한 만큼 불통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자의 화행을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의도와 믿음 등의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화자의 화행을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청자의 관점에 따라 대화는 소통 혹은 불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화자 중심의 Spencer-Oatey(2000, 2005)의 조화 관계 이론을 진행되는 맥락에서 화자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청자의 지향점과 요인까지 확장하여 살펴보았다.

‘형식적으로만 협조적인 유형’에서는 대화참여자의 서로 대립되는 조화 관계 지향점 (즉, (1)-2) 혹은 (1)-3))이 각 주체의 체면 혹은 권리에 대한 우려의 문제로 확장된다. 그러나 주체들 간의 대립되는 지향점은 조화 관계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고 각 주체의 바람과 믿음이 그들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실되고 공유된 이상적 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조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협조적 대화 행위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반목의 의도가 명백한 공격적 유형’에서 대화참여자는 조화 관계를 무너뜨리기를 원하거나 (즉, (1)-4) 조화 관계의 질에 대해 무관심한 (즉, (1)-3) 지향점을 갖고 대화에 참여 한다. 또한 주체는 상호작용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지향점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체면과 권리를 침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몰입하게 된다. 이 행위의 또 다른 특징으로 주체는 상대방의 비동의 화행 전략에 비교적 취약하다는 점이다. 가령 자신의 요청 혹은 제안 화행이 상대방에 의해 거절되었을 때 주체의 행위는 급격하게 부정적 자질의 것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유형의 행위는 상대방과의 공유되지 못하는 의도와 믿음에 기반하여 형성된 행위라는 점에서 이러한 불일치 상대는 방해 요소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게 되어 그들의 언어전략에 영향을 주는 바람과 계획을 부정적 자질의 것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화참여자는 비협조적 태도로 불통의 지향점에 기반하여 자신의 체면 그리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불통을 추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전정미(2009, 2011)의 비동의 (혹은 거절) 화행 전략에 대한 부가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비동의 화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위 전략을 [+/- 문제해결] 그리고 [+/- 관계유지]의 측면에서 다루었던 전정미의 구분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3.2절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회피전략에 해당하는 되묻기 혹은 승승전략에 해당되는 이유 설명하기 전략은 주체가 상호작용에서 추구하는 조화 관계 지향점에 따라 (즉, (1)-3) 혹은 (1)-4)) 이것들은 오히려 자기중심전략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불통을 추구하는 지향점 환경에서는 두 가지 하위 전략들은 [문제해결]과 [관계유지]의 기준이 아닌 [+/- 자신 체면 유지] 그리고 [+/- 의도 성취]의 기준에 의해 세분화 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점은 전정미의 연구 또한 Spencer-Oatey와 마찬가지로 화자 중심적 관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불통 혹은 형식적 소통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려면 화자와 청자가 대화에서 각각 채택하고 있는 개별적인 조화 관계 지향점을 고려하고 또한 각 주체의 지향점에 영향을 주는 세부적 요인들에 대한 개별적 고찰이 언어적 분석 과정에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전정미(2009), “거절회행에 나타난 대화 전략 연구”, 담화와 인지, 16(1), 담화인지언어학회, 113-134.
- 전정미(2011), “비동의 회행에 나타난 대화 전략 연구”,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325-352.
- Austin, J. L.(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Bach, K., & Harnish, R. M.(1979), *Linguistic Communication and Speech Acts*.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MIT Press.
- Bratman, M. E.(1984), Two Faces of Intention, *Philosophical Review*, 93(3), 375-405.
- Bratman, M. E.(1985), Davidson’s Theory of Intention. In B. Vermazen and M. B. Hintikka, eds. *Essays on Davidson: Actions and Even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3-26.
- Bratman, M. E.(1987), Intention and Evaluation.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10(1), 185-189.
- Bratman, M. E.(1990), What is intention? In Cohen, Morgan, and Pollack, eds., 15-31.
- Bratman, M. E.(1992a), Planning and the Stability of Intention. *Minds and Machines*, 2(1), 1-16.
- Bratman, M. E.(1992b), Shared Cooperative Activity. *Philosophical Review*, 101(2), 327-341.
- Bratman, M. E.(1993), Shared Intention. *Ethics*, 104(1), 97-113.
- Brown, P. & Levinson, S. C.(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lpeper, J.(1996), Towards an anatomy of im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25, 349-367.
- Culpeper, J., Bousfield, D., & Wichmann, A.(2003), Impoliteness revisited: with special reference to dynamic and prosodic aspects. *Journal of Pragmatics*, 35, 1545-1579.
- Grice, H. P.(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Han, S. H.(2014), *A Study of Intentional Miscommunications and Misunderstandings in Marital Conversations: An Integrated Approach of Pragmatics and Action Theory*. Sogang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Spencer-Oatey, H.(2000), Rapport Management: a framework for analysis. In

Spencer-Oatey, ed., *Culturally Speaking: Managing Rapport through Talk Across Cultures*, London, Continuum, 11-46.

Spencer-Oatey, H.(2005), (Im)Politeness, Face and Perceptions of Rapport: Unpackaging their Bases and Interrelationships. *Journal of Politeness Research*, 1, 95-119.

이성범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영미어문전공
121-742
전화번호: 02-705-8294
전자우편: pragmatics@naver.com

한승훈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121-742
전화번호: 02-6231-2738
전자우편: hansh@sogang.ac.kr

원고 접수일: 2014년 03월 01일

원고 수정일: 2014년 03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4년 03월 25일